

2023. 10. 18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
자연성회복과

한강여가사업부장	이예림	02-3780-0868
자연성회복과장	최영준	02-3780-0834
담당자	김민주	02-3780-086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시, 난지한강공원에 세븐틴 등 스타숲 생긴다.. 올해 총 10개 기부 조성

- 세븐틴숲 등 7개 추가돼 스타숲 10개로 확대... 느티나무 등 총 5,233주 식재
- 스타 아끼는 마음으로 팬들이 수목 기부, 시는 1만^m 부지 제공·사후관리 등 지원
- 관광명소 될 수 있도록 스타 명패 등 시설 설치 적극 지원,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

- 서울시 난지한강공원에 세븐틴 등 스타의 이름을 딴 ‘스타숲’이 생긴다. 시는 앞서 NCT 멤버 도영숲(‘23.4.1.) 등 3개소에 이어, 10월까지 스타숲 7개가 추가 조성돼 올해 총 10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. 10개소에는 총 5,233주의 나무가 식재된다.
- ‘스타숲’은 각 스타를 아끼는 마음으로 팬들이 수목을 기부하고 스타의 이름을 붙여 조성된 숲이다. 기후위기 시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일부 스타들의 가치관이 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숲 조성에 대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.
-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 전역에 흩어져 조성돼 온 스타숲을 한 곳에 큰 규모로 만들어 참여도를 높이고,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난지

한강공원에 1만 m^2 규모의 부지를 할애했다. 식재 설계, 스타숲 나무 식재, 물주기·풀베기 같은 사후관리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.

-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스타숲 7개는 세븐틴숲, 박서함숲 등이다. 세븐틴숲에는 빨간 열매를 맺는 수종인 남천, 하얀 꽃이 피는 이팝 나무 총 403주가 지난 11일(수) 들어섰다. 박서함숲에는 남천과 느티나무 총 653주가 10월까지 식재된다.
- 한강공원 ‘스타숲’ 조성에 함께해 온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은 “스타의 팬클럽들은 이미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.”며 “스타의 선한 영향력으로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‘숲’을 조성하는 팬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.”고 전했다.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성숙한 팬 문화에 힘입어 선한 영향력이 다른 팬들, 시민,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.”며 “난지한강공원 스타숲이 시민들과 팬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숲 안내판, 스타 명패 등 팬들이 원하는 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. 한강공원 스타 숲 사진

난지한강공원 스타 숲 사진



▲ 난지한강공원 도영숲(NCT)



▲ 난지한강공원 세븐틴숲

난지한강공원 스타 숲 안내판 사진



▲ 난지한강공원 도영숲(NCT) 안내판 (사진제공:서울환경연합)